

# 회 원 사 소 식

## 남영산업

### ▲사무실 이전

- 이전부서 : 컴퓨터사업본부
- 이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-5 쌍마빌딩 1202호

▲문강민 사장

- 연락처 : TEL 783-3941/3
- TLX K27257
- FAX (02)675-2995

### ▲합작법인 설립추진

- 합작사 : CONCURRENT COMPUTER CORPORATION
- 설립예정일 : 1988. 2. 1

## 한국증권전산

▲증시활황으로 시스템 교체 증시의 활황으로 인한 폭발적인 업무량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구랍 12월 중순에는 현 UNISYS 1100/72 시스템을 UNI-92시스템으로 교체하고, 88년 1월말까지 1100/94 시스템으로 확장예정이며 4월부터 시스템의 DUPLEX화로 장애가 없는 HOT SYSTEM을 구축할 예정.

### ▲신입사원 채용

88년도 대졸신입사원으로 766명의 지원자중 약 25명을 최종선발하여 약 2개월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2월 초순경 정규직원으로 발령할 예정.

### ▲자동 증권매매 체결시스템 가동

88년 3월초 거래량이 하위 15%이내인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인데, 이것은

컴퓨터를 이용 직접 증권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신속, 정확성을 기해 증권시장과 투자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할 것으로 기대.

### ▲시스템의 국산화 추진

현 공동온라인 UTS단말기를 효성단말기로, 종합정보문의 SORD단말기를 N 5200/05 SUPER로 사용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중.

## 에스·티·엠

### ▲EDS에 대한 용역제공 계약 체결

구랍 1일자로 합작사인 EDS와 용역제공 계약의 체결을 통해 인력수출의 길이 열리게 됨.

동 계약은 EDS가 자사의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의 소요가 있는경우, STM요원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하여 용역 댓가를 받는 조건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 STM으로서는 EDS와의 계약을 발판으로 해외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EDS의 프로젝트에 STM요원을 정규 프로젝트요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생생한 현장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. 이 계약의 체결은 STM 해외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전략으로 인력수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2단계 STM명의를 시스템 용역수주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.

### ▲대통령선거 투개표 실태중계 성공적 수행

제13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실태중계시 정전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, MBC전산실의 기능을 비상시 대체(Back-up)해줄 책임을 맡음으로써 대통령선거 국민투표, 투개표 실태중계의 성공적인 수행에 큰 기여를 했다.



▲서정호 사장

**고건데이터시스템**

**▲IBS 세미나 개최**

지난 12월 3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IBS (Intelligent Building System) 관한 세미나를 국내 최초로 개최, 국내의 관련업체 및 업계(정부투자기관, 건설, 금융, 증권 등)의 200여명이 참석.

이번 강사는 주로 고건데이터시스템(주)의 해외 기술계휴사인 일본의 NTT사(NTT International)의 마쓰오 사장등 전문가들로 이들은 IBS를 소개, 한국전산원 이기식 박사는 “국내 OA의 현재와 미래”라는 주제를 발표.



▲양승택 사장

**한국통신진흥 전산망  
기술개발자금 조성**

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진흥을 목적으로 86년에 설립된 한국통신진흥(사장 梁承鐸)은 올해 “자립경영기반 확립”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기존 수행사업의 영업기반 확대와 정보통신 육성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에 주력한 계획이다. 통신진흥이 올해 펼치게 될 주요사업은 ▲행정전산망사업 자금지원 ▲한국전기통신공사의 수탁사업인 각종 단말설비의 유지·보수 ▲정보통신 육성지원을 위한 전산망 기술개발 자금조성 등이다.

**日經 텔리컴 정보 이용자 2백個社 돌파**

毎日經濟新聞社(사장 金在鳳)가 국내 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의 일환으로 해외 데이터베이스인 日經 텔리컴(NIKKEI TELECOM)을 국내에 개통,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만인 현재 국내가입자수 200여개사에 개통정보는 80여개에 이르렀다.

경제·경영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베이스로는 국내 유일의 日經 텔리컴은 세계경기추세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증권, 금융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급변하는 국내업계의 경기추세와 더불어 해외 데이터 베이스의 사용이 급속히 높아가고 있는 국내업계에 日經 텔리컴의 이용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.



▲毎日經濟新聞社가 국내 서비스하는 日經텔리컴 정보서비스의 가입자가 200個社를 넘어섰다.

이 난은 회원사의 인사이동, 조직변경, 주요행사등 각종 소식을 전하는 난입니다.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**\* 원고 보낼곳·연락처**

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-228 한국데이터통신사옥  
1204호 정보통신진흥협회「정보화사회」편집위원회  
전화 : 796-6444